

기업지원기능 대폭강화

대구시 기구개편안 마련...내달 시의회 제출

대구시 경제산업국이 기업지원본부로, 과학기술진흥실이 신기술산업본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이 바뀐다. 또 팀제 도입으로 기업지원본부에 산업입지팀이, 신기술산업본부에 메카트로닉스팀이 신설되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할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생긴다. **☞ 7면에 관련기사**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구개편안을 마련, 27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시 등이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3과 13담당이 신설되고, 6과 22담당이 3과 11담당으로 통폐합되는 한편, 해외주재관 2명이 감축된다. 또 현재 경제산업국과 과학기술진흥실·지하철건설본부 등 3국 1원 2본부에 팀제가 시범 도입된다.

대구시의 조직개편 방향은 전체적으로 경제·과학, 복지·여성, 도시주택 분야의 기능이 보강되고, 행정지원 및 환경녹지와 교통·건설 분야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기구개편안을 다음달 대구시의회에 제출한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